

일한 번역의 이문화수용과 문화변용*

오경순**
ksohlee@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일한 번역의 이문화수용과 문화변용의 실제 |
| 2. 번역과 번역 전략 | 4. 마치며 |

主語語: 일한 번역(Japanese into Korean Translation), 이문화수용(Cross-Cultural Acceptance), 문화변용(Acculturation), 번역전략(Translation Strategy), 친숙하게 하기(Domesticating Translation), 낯설게 하기(Foreignizing Translation), 대안번역(Alternative Translation), 가독성(readability)

1. 들어가며

번역은 이문화를 수용하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문화의 창이다. 따라서 번역은 이문화 간 소통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번역은 문학적이고 문학은 예술이며 번역문학은 문화의 한 영역이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결국 번역작업은 문화의 확장, 문화의 재창조 작업이다.

소설가 신경숙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2008년10월 출간)의 영문판 『Please Look After Mom』(2011년4월 출간)이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를 다시 썼다. 영문판 초판 발행 부수 10만부, 출간 직후 아마존닷컴 전체 순위 20위권에 진입했다.(국민일보, 2011.4.15) 한국문학 초유의 ‘사건’이다.(중앙일보, 2011.4.9) 번역의 현지화(domestication)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첫 사례로 평가되었다. 요컨대 『엄마를 부탁해』 소설 전반에 흐르는 한국 고유의 토속적 이문화 용어 및 배경이 문화가 전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현지문화에 맞게 문화변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번역과정의 성과는 앞으로 번역학이 지향해야 하는 번역작업의 방향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7596)

**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겸임교수



번역은 단순한 ‘말 옮기기’가 아닌 ‘문화 옮기기’로 원문권의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이 그대로 번역문권의 독자의 반응과 언어효과와 감동으로 전달되어야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각 나라는 문화의 차이뿐 아니라 모든 언어에는 그들 나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등가성이 담보된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국가 내에서도 문화 및 언어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오징어라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낙지라 부르고, 그와 정반대로 남한에서 낙지라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오징어라 부른다. 또한 남한에서는 ‘별일 없다’라는 뜻의 ‘일없다’가 북한에서는 ‘괜찮다’의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아래 예 (1)은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1) 남한	북한
오징어	낙지
낙지	오징어
일없다	괜찮다

다음 예문 (2)는 전라도 민요시 나무타령의 일본어 번역 예이고, 예문 (3)은 일본 자장가(子守唄)의 한국어 번역 예이다. 번역 (2)와 (3)에서 드러났듯이 한일 양국의 문화 차이로 인해 이문화 용어 및 전라도 사투리, 시적 리듬감, 운율 등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

- 나무타령 / 전라도 민요시 -

- (2) 청명 한식에 나무 심으러 가자 ⇨ (2) 清明、寒食の日に木を植えに行こう。
 무슨 나무 심을래 何の木を植えよう。
 십리 절반 **오리나무** 十里の半分、**五里の木**(榛)
 연의 갑절 **스무나무** 十の倍の、**二十の木**(へりケヤキ)
 대낮에도 **밤나무** 昼間でも、**夜の木**(栗)
 방귀 끼어 **뽕나무** おならをして、**ぶうの木**(桑の木)
 오자마자 **가래나무** 来たとたんに、**行けの木**(マンシュウグルミ)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敷いて座って、**しわくちゃの木**(クコ)
 거짓 없어 **참나무** 嘘はつかない、**本当の木**(クヌギ)
 그렇다고 **치자나무** そういうことに、**しょうの木**(クチナシ)
 칼로 베어 **피나무** 刃物で切って、**血の木**(シナノキ)
 네편 내편 **양편나무** そちらとこちら、**両方の木**(二本のエノキ)
 입 맞추어 **쪽나무** 口づけをして、**チューの木**(シャリンバイ)
 양반골에 **상나무** 両班の里に、**偉いの木**(イブキ)
 너하구 나하구 **살구나무** あなたと私と、**生きるの木**(アンズ)
 이 나무 저 나무 この木あの木、
 내 발두령에 내 나무 私の畑に私の木!)

(矢島暁子²⁾ 譯)

- (3) 佑司が泣いて眠らないときは、ぼくが自分の腹の上の彼を寝かせ、きみが隣で子守唄をうたった。**ネンネンコロリヨオコロリヨ**。そうすると彼はあつという間に寝付いてしまう。
 『いま、会いにゆきます, p.264』
 (3) 유지가 밤새 보채며 영 잠을 자지 않을 때는 내 배 위에 올려놓고 토닥거리고 너는 그 곁에서 자장가를 불렀다. **금자동이 은자동이 코코 잘 잔다**. 그러면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잠이 들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p.215』

문화의 이해 없이 번역은 불가능하다. 최적의 문화적 등가성 확보는 번역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자 번역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특히 문화적 등가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문화 용어 번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문화가 만나는 접점에 번역이 존재

1) 전라도 민요시 <나무타령>은 이규태(2001)『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수록된 작품으로 동 도서는 한국문화번역원 지원으로 현재 야지마 아키코(矢島暁子)가 번역 중인 도서임.
 2)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수료, 프리랜서 한일 번역가

하기 때문이다.

모든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는 원문의 뜻을 번역문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올바른 말로 옮기는 일이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옮긴다는 것은 번역문 문화에 맞게 이문화 수용과 변용이 가장 자연스럽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한 번역 과정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점 중에는 직역과 의역 및 오역과 번역투에 관련된 문제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먼저 문화가 다른 한일 양국의 이문화 요소가 실제 일한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문화변용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고찰한다.

그 다음 이문화 용어 번역에 ‘친숙하게 하기(Domesticating Translation)’와 ‘낯설게 하기(Foreignizing Translation)’ 번역 전략을 구사하고 적용해보면서 가독성을 고려해 다각도로 분석을 시도한다. 한일 양 언어에 문화적 등가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문화 용어의 번역에는 번역가의 시름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한 번역에서 이문화 용어 번역에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와 같은 구체적 번역 방법을 논하거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선행연구나 연구 성과물은 일어일문학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2. 번역과 번역 전략

번역작업이란 크게 두 가지 과정 ‘원문 이해’ 과정과 ‘번역문 표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문 이해 과정과 번역문 표현 과정이 말처럼 그리 독특한 작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일본어로는 ‘私(わたし)·私(わたくし)·あたし·あたい·僕(ぼく)·自分(じぶん)·俺(おれ)·俺、私(わし)·わい·わて·あて·うち·己等(おいら)·俺ら(おら)·おい·おいどん’ 등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영어나 한국어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뿐이다. 이처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다양한 일본어 1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옮기느냐는 전적으로 번역가의 역량과 선택에 달려있지만 한국어 번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저)’로밖에는 번역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오역하기 쉬운 「嘘(うそ)をつけ!」는 ‘거짓말해라!’ 가 아니라 ‘거짓말 마라!’가 옳은 번역이다. 금지를 나타내는 ‘거짓말 마라 「嘘をつくな」」를 강조하는 의미로 「嘘をつけ」를 거짓말쟁이의 의미로 사용했고, 여기서 「嘘をつけ」는 발화의 기능 중 명령의 기능이 아닌 상대를 비난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거짓말 마라’의 일본어 「嘘をつけ」 혹은 「嘘つけ」는 일본어 문법만으로는 딱히 설명이 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로 번역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의 측량 단위에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일한 번역에서 자칫 오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말 1리(里)는 약400미터(392.727m)이고 일본어 1리(里)는 약4킬로미터(3.9273km)이다. 그러므로 일본어 1리(里)의 한국어 번역은 10리가 된다. 따라서 아래 예문 (4)에서처럼 일본어 「十五里」의 한국어 번역은 ‘십오리’가 아닌 ‘백오십리’가 된다.

(4) 時雄は雪の深い十五里の山道と雪に埋もれた山中の田舎町を思い遣った。
『蒲団・重右衛門の最後』

⇨3) 도키오는 눈 쌓인 **백오십리** 산길과 눈에 파묻힌 산 속의 시골 마을을 떠올렸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もうたくさんだ。」라는 말은 흔히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화자의 분노나 노여움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글자 그대로 ‘이제 충분하다’로 번역하면 오역이 될 것이고 ‘더는 필요 없어’ 혹은 ‘이제 딱 질색이다’가 제대로 된 번역이다.

번역자는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과 같다는 말이 있다. 번역자는 번역문의 독자와 원문의 저자 둘 다를 섬겨야 하는데 이 경우에 중용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도 존재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독일 낭만주의 시대에 자세히 논의 되었다.⁴⁾

괴테(Goethe) → 모국어 번역문에 친숙한 번역 <친숙하게 하기>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 원문에 충실한 번역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Foreignizing Translation)’란 원문에 존재하는 이국적 요소를 번역문에 그대로 옮겨 의도적으로 번역문의 독자에게 낯선 경험을 하게 하는 번역 방법으로 ‘이국화(異國化) 번역’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친숙하게 하기(Domesticating Translation)’란 번역문 독자의 문화를 기준으로 이질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번역으로 ‘익숙한 방식의 번역’, ‘자국화(自國化) 번역’이라고도 하며 베누티는 ‘자국어화(domestication) 번역’이라 불렀다.⁵⁾

3) 본고에서 기호 ‘⇨’는 글쓴이의 번역을 뜻한다.
4) 김효중(2000:47)
5) Venuti(1995:20)

번역문 문화에는 없는 이문화 요소나 번역문에 부자연스러운 어문이나 구문, 직역투로는 번역문 독자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번역문에 친숙한 ‘친숙하게 하기’로 번역할 것인지 원문에 충실한 ‘낮설게 하기’로 번역할 것인지 번역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번역문을 읽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 →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

원문의 문화 요소, 용어와 구문을 충실하게 따른 번역 → <낮설게 하기 번역 전략>

‘낮설게 하기’ 번역 전략은 우리말에 없는 어휘나 문체, 구문을 보완하여 우리말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고 원문에 존재하는 이국적 요소를 번역문에 그대로 옮겨 의도적으로 번역문의 독자에게 낯선 경험을 하게 하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 (5)에서 일본어 「PPK」를 그대로 ‘PPK’로 번역하여 번역문 독자에게 이국적 정취를 느끼게 하거나 이국문화를 강조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PPK」를 ‘PPK’로 번역한다면 ‘낮설게 하기’ 번역 전략이 되겠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구팔팔일이삼사’로 번역한다면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이라 할 수 있다.

(5) **PPK**(ぴんぴんころり。死の直前までぴんぴんして、ころりと逝くことを理想とする考え方)と聞いた時に、わたしは老いを拒否する思想を感じとってしまう。老いを見たくない。聞きたくない、避けたいと否認し、老化に抵抗するひとにとっては、ある朝ぼつくり、は理想だろう。 『男おひとりさま道, p.80』

⇨ **PPK**(일본어 ‘핀핀코로리(ぴんぴんころり)’의 첫 자를 딴 말로 죽기 직전까지 팔팔하게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것을 이상으로 여김-웁긴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도 나이들을 거부하는 사상이 내재해 있음을 느낀다. 늙는다는 것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피하고 싶다며 부인하며 노화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아침 덜컥 가는 것이야말로 이상이라. 『독신의 오후, p.96』

또한 아래 예문 (6)에서 일본어 「アラフォー」를 원문 그대로 ‘아라포’로 음성번역 한다면 역시 ‘낮설게 하기’ 번역 전략이 되겠고, 의미번역인 ‘40대 전후의 전문직 여성’으로 번역한다면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아라포(アラフォー)’는 영어 ‘around forty’의 약어(略語)로 40세 전후(35세~44세)의 커리어를 쌓은 전문직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2008년 유칸(ユーキャン(U-CAN)) 주최 신어(新語)·유행어 대상을 차지한 말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어 「なしくずしシングル」은 결혼할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 싱글이 된 여자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우리말로 ‘노처녀’ 혹은 ‘싱글’만으로는 등가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なしくずしシングル」의 근사치 등가어로 최근 유행하는 말로 ‘상황 싱글’ 등으로 번역한다면 ‘친숙하게 하기’ 번역이라 할 수 있겠다.

(6) **アラフォー**(アラウンドフォーティーこと40歳前後)から下の世代は、少子化の影響でまず絶対数が少ないだけでなく、「負け犬」が増えている。このメス「負け犬」族は、結婚願望が高いのに、条件を落とさないばかりに一日のぼしに結婚を先のぼしにしてきた "**なしくずしシングル**" だ。めったな条件では落とせない。 『男おひとりさま道, p.65』

⇨ ‘**아라포**’(around forty : 40대 전후의 전문직 여성을 일컫는 말-옴긴이)

이하 세대는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노처녀’가 늘고 있다. 이 ‘노처녀’들은 결혼하고 싶은 열망은 강하지만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루하루 결혼을 미루어 온 ‘**화려한 싱글**’들이다. 웬만한 조건에는 넘어 오지 않는다. 『독신의 오후, p.77』

또한 실제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독자에게 번역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번역투를 사용하거나 혹은 원문을 마치 번역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한 위조 문학작품에 사용하는 전략인 이른바 ‘의사번역(pseudo translation)’⁶⁾ 방법도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1장 말미에 기술한 바와 같이 문화가 다른 한일 양국의 이문화 요소가 실제 일한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는지 이문화 용어 번역에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을 구사하고 적용해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가독성 있는 번역방법 제시를 연구목표로 한다.

3. 일한 번역의 이문화수용과 문화변용의 실제

3장에서는 번역을 이문화수용이자 이문화간 소통 행위로 규정하고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을 이문화수용과 문화변용의 관점에서 일한 번역문의 실례를 중심으로

6) A term used to refer to “TL texts which are regarded in the target culture as translations though no genuine STs(Source Texts) exist for them”(Toury 1980:30).The notion of pseudo translation thus refers to the kind of literary forgery in which a writer attempts to present an original text as if it were a translation. Shuttleworth, Mark & Cowie,Moira.(eds)(1999:134)

고찰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언어 간 연구에 국한된 일한 번역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간 번역으로 확대 해석하고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 예문 (7)~(10)은 한국어 ‘만두’와 혼동하기 쉬운 일본어 「お饅頭, 「まんじゅう」의 한국어 번역의 다양한 예이다. 일본어 「お饅頭, 「まんじゅう」의 한국어 역 ‘만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 (7) 伊良部は饅頭をすべて平らげた。「運動したからね」と涼しい顔で言っていた。看護婦はどこへ行ったのかなど思い、窓から外を見ると、ヒョウの檻の前でたばこを吹かしていた。

『空中ブランコ, p.481』

이라부는 만두를 깨끗이 먹어치웠다. “운동을 해서 그래.”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간호사는 대체 어디 있나 싶어 창밖을 내다보니 표범 우리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공중그네, p.111』

- (8) お茶と一緒に出した饅頭を頬張っている。 『空中ブランコ, p.46』

차에 곁들여 내놓은 만두를 입이 터져라 밀어 넣은 채 이라부가 대답했다.

『공중그네, p.109』

- (9) 「今度、田舎から、葬式まんじゅう、持ってきて、みんなにあげます!!」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p.284』

“이번에 시골 가면 장례식 만두(주로 시골에서 장례식을 끝내고 돌아가는 조문객들에게 만두를 나누어 주었다고 함-역주)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주겠습니다!”

『창가의 토토, p.225』

- (10) ささやかに三つぐらいのお饅頭で相手がことに喜んでくれるじゃないかっていう気がしちゃうのね。 『今日をありがとう, p.44』

⇨ 그까짓 과자 세 개 정도로 상대가 뭐 그리 기뻐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들지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p.48』

일본어 「お饅頭」는 대개 일본식 과자 「和菓子」를 뜻하며 「洋菓子」는 cake를 지칭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お饅頭」의 우리말 번역은 예문 (10)과 같이 ‘과자’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다.

한편 일본어 「ギョウザギョーザ餃子」는 우리가 먹는 중국식 만두를 의미하며, 「焼饅頭」는 ‘군만두’, 「肉饅頭」는 ‘고기만두’를 의미한다. 위 예문 (10)에서처럼 「お饅頭」를 ‘과자’로 번역

하는 것은 Kade (1968)의 번역 등가 4단계 중 근사치 등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문 (7)과 (8)에서처럼 ‘饅頭’를 ‘만두’로 번역하거나 (9)의 경우처럼 역주가 있음에도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인 독자는 ‘일본 과자’가 아닌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만두’나 ‘야채만두’로 오해하기 쉽다. 오히려 일본어를 음역한 ‘만주’로 옮긴다면 ‘만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우리가 익히 아는 ‘만두’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이다.

「お饅頭」 낮설게 하기 ⇨ ‘만주’
 친숙하게 하기 ⇨ ‘과자’

다음 예문 (11)에 나오는 「ミーハー」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若者言葉)이다. 즉 젊은 세대(若者世代) 문화를 잘 모르면 번역하기 쉽지 않은 용어 중 하나이다.

(11) このニューヨーク・ステーキのご当地決定版といえ、マンハッタンの夜景を目のまえにして食べる、リバーカフェのそれであろう。場所からミーハーの譏りは免れまいが、それこそニューヨーク中を食べ歩いた末に、私の極めつきはここに落ち着いた。

『つばさよつばさ (ステキなステーキ) p.111』

⇨ 뉴욕 스테이크의 뉴욕(그 지역) 결정판이라 한다면 맨해튼의 야경을 눈앞에 두고 먹는 리버 카페일 것이다. **유행에 따라** 장소를 고른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지만, 그거야말로 뉴욕 중심을 헤집고 다니며 먹어본 모든가게 중 맛으로 최고였다.

7) Kade(1968)에 의하면 어떤 번역과정에서나 의미론적 등가는 최고의 우선권을 가진다. 즉 번역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미상의 불변성이 번역등가의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번역의 문제점은 두 언어 사이의 표현층위와 내용층위간의 1 : 1 등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두 언어 간의 등가관계를 표현층위와 내용층위가 서로 얼마만큼의 상관성을 갖느냐에 따라 구분한 등가의 4단계를 일한 번역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완전한 등가(total translation equivalence): 1대 1 등가
- (2) 최적의 등가(optimal translation equivalence): 1대 다수 등가
 예) おば(叔母, 伯母, 小母) = 백모, 숙모, 외숙모, 이모, 고모, 숙모, 이줌마 등.
- (3) 근사치 등가(approximative translation equivalence): 1대 부분 등가
 예) 大丈夫 ⇒ 일본어 의미: 立派な男。危なげなくしっかりしているさま。
 ⇒ 한국어 의미: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
 チンドン屋 ⇒ 일본어 의미: 人目につきやすい服装をし、太鼓・三味線・鉦らっぽクラリネットなどをならしながら大道で広告宣伝をする人。
 ⇒ 한국어 의미: 광고쟁이
- (4) 무의 등가(등가어 부재) zero translation equivalence: 1대 0 등가
 예) 고타쓰 火燵(こたつ), 다타미 畳(たたみ), 데루테루보즈 照る照る坊主(てるてるぼうず), 된장녀, 386세대.

「ミーハー」는 세상의 유행이나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열중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들에 쉽게 영향을 받는 주체성이 없고 경박한 젊은 여성을 경멸조로 일컫는 말이다. 통상 가타카나로 표기하지만, 예전에는 ‘미하족(ミーハー族)’ 등으로 부른 적도 있었다. 「ミーハー」는 ‘미참(みいちゃん)’, ‘하참(はあちゃん)’의 축약어로 당시 여성의 이름은 ‘미요참(みよちゃん)’, ‘하나짱(はなちゃん)’ 등 ‘미’나 ‘하’로 시작되는 이름이 많았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위 예문 (11)의 「ミーハー」의 한국어 역으로 근사치 등가어인 ‘유행에 민감한’ 혹은 ‘유행에 휘둘리는’, ‘유행을 따르는’ 등의 번역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번역 실험 결과를 보면 번역 사례는 실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래 ①~⑤는 「ミーハー」의 번역 실험 결과의 몇 가지 번역 예이다.

「ミーハー」 낯설게 하기 ⇨ ‘미하?’
친숙하게 하기 ⇨ ‘된장녀’

《일한 번역 수업에서 「ミーハー」의 실제 번역 사례》

- ① 너무 분위기에 민감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그 곳이야말로 뉴욕을 살살이 돌아다닌 끝에 나만의 맛집으로 낙찰된 곳이다.
- ② 장소부터 너무 유행과 화려함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테지만 그곳 스테이크야말로 뉴욕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어본 끝에 나의 궁극의 종점은 이곳 스테이크에 도달하였다.
- ③ 장소와 분위기만 따지는 된장녀라는 면박을 피할 순 없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뉴욕의 중심을 직접 먹으며 다닌 끝에 마침내 이곳을 찾아낸 것이다.
- ④ 장소의 특성상 따라쟁이라는 비난은 면할 수 없지만, 그야말로 뉴욕의 맛집을 찾아다닌 끝에 궁극의 종착지는 이곳에 자리 잡았다.
- ⑤ 가게의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곳이야말로 온 뉴욕을 돌아다니며 먹어본 모든 가게 중 맛으로 최고였다.

다음 예문 (12)은 일본어 「団塊世代」의 번역 예이다.

「団塊世代」는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어떤 시기를 이르는 용어로 대체로 전쟁이 끝난 후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団塊世代」와 미국의 베이비붐 시대와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비붐 시대는 각각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 (12) いわゆる団塊世代の末年である貫井恭一はライバルにはことかかない。『鉄道員, p.125』
 이른바 단카이세대 말년인 누쿠이 교이치에게 라이벌이라면 줄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많았다.
 『철도원, p.127』

위 예문 (12)에서 단카이세대(団塊世代)⁸⁾는 일본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1949년 무렵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는 종전 이후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이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한다. 다른 세대에 비하여 인구수가 특히 많았던 데서 비롯되었고, ‘단괴세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단괴세대’ 보다는 ‘베이비붐 시대’가 우리에게 훨씬 친근한 용어이다. 경제평론가이자 작가인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가 1976년에 발표한 소설 『団塊の世代』라는 책 제목에서 유래한 말이다.

- 「団塊世代」 낫설게 하기 ⇨ ‘단카이 세대’
 친숙하게 하기 ⇨ ‘베이비붐 시대’

다음 예문 (13)은 얼핏 보면 우리나라 씨름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경기 운영 면이나 방식, 규칙이 전혀 다른 일본의 인기 있는 전통 경기인 「스모(相撲)」의 번역 예이다.

- (13) 「相撲とりが好きだからって、あなたいきなり相撲部屋のおかみさんになれる？」
 『哀しい予感, p.161』
 “너 씨름 좋아한다고 갑자기 씨름판에 오를 수 있겠니?” 『슬픈예감, p.148』
 ⇨ “너 스모선수가 좋다고 해서, 스모 소속단의 안주인이 될 수 있어?”

위 예문 (13)의 「相撲取り」는 「力士」라고도 하며 일본 스모선수를 말한다. 일본 스모(相撲)는 일본인들이 프로야구와 함께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이다. 씨름 경기장(지름 8m)보다 다소 적은 정방형 경기장(한 변 6.7m)인 ‘도효(土俵)’안에서 몸에 ‘마와시(廻し)’를 찬 두 선수가 서로 대결해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일본 국기(國技)이다. 우리나라 천하장사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스모 챔피언 ‘요코즈나(横綱)’는 막대한 돈과 인기를 얻는다. 흔히 일본인들은

8) 단카이(団塊)는 주위보다 단단한 불쑥 튀어나온 덩어리를 의미한다.

스모선수를 친근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お相撲さん」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예문 (13)에서 번역가는 「相撲取り」를 ‘씨름’으로 오역을 하였다. 또한 「相撲部屋のおかみさんになれる?」의 번역인 ‘씨름판에 오를 수 있겠니?’ 역시 오역이다. 「相撲部屋」는 스모선수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스모선수가 소속된 그룹 혹은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예문 (13)는 낯설게 하기 전략을 구사해야 오히려 우리나라 씨름과는 엄연히 구별되며 우리 독자에게 친숙하고 원문의 의미도 충실하게 살리는 제대로 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相撲取り」 낯설게 하기 ⇨ ‘스모선수’
 친숙하게 하기 ⇨ ‘등가어 부재’

다음 예문 (14)은 일본 NTT(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가 발행하는 업종별 전화번호부인 「タウンページ」의 번역 예이다.

(14) 「タウンページを広げると、隣りに伊良部総合病院があった。」 『空中ブランコ, p.239』
 “ ‘타운페이지’를 들춰보니, 역 부근에 ‘이라부 종합병원’ 이라는 데가 있었다.”
 『공중그네, p.260』

⇨ ‘전화번호부’를 들춰보니, ……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행되는 업종별 전화번호부는 ‘옐로우 페이지(Yellow Pages, イエローページ)’라 부르는데 「タウンページ」는 ‘옐로우 페이지’의 일본판으로 이름처럼 표지가 노란색으로 되어있다. 예문 (14)의 「タウンページ」의 번역어인 ‘타운페이지’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이다. 우리말에도 「タウンページ」에 해당하는 최적의 등가어인 ‘전화번호부’ 혹은 ‘업종별 전화번호부’가 있다. 「タウンページ」를 일대 일 직역의 번역투 표현인 ‘타운페이지’로 번역한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독자의 의미 파악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タウンページ」 낯설게 하기 ⇨ ‘옐로우 페이지’
 친숙하게 하기 ⇨ ‘전화번호부’, ‘업종별 전화번호부’

아래 예문 (15)의 「ラムネ(라무네)」는 설탕과 레몬향료를 가한 물에 탄산가스를 녹인 청량음료의 한 가지로 일본 특유의 음료로서 우리말로 일대 일 등가어를 찾기 매우 어려운 이문화 용어 번역의 예이다.

(15) シャッターを下ろしかけてうんざりと恭一を見、いちど店に入ってから冷えたラムネを持ってきてくれた。 『鉄道員, p.136』

이윽고 셔터를 내리려던 점원은 어이가 없다는 눈빛으로 교이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가게에 들어가 시원한 사이다 한 병을 들고 나와 건네주었다. 『철도원, p.139』

⇨ 시원한 라무네 한 병을 들고 나와 건네주었다.

「ラムネ(라무네)」사이다와 같은 청량음료인 것은 동일하나 병마개가 유리구슬로 되어있는데 이 유리구슬 마개가 ‘라무네’의 트레이드마크이자 특징이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 소설에도 ‘라무네 병 속의 구슬’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일본의 독특한 청량음료인 ‘라무네’와 사이다에는 맛이나 병모양 등 분명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본 특유의 문화가 가미된 ‘라무네’의 등카어로 사이다로 선택해 번역한다면 원문의 충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앞의 예문 (13)의 ‘스모선수’처럼 일본 고유의 문화를 살려 ‘라무네’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와 뉘앙스를 살리는 올바른 번역이라 생각된다. 사이다보다는 ‘라무네’와 맛이 비슷한 청량음료인 ‘레모네이드(lemonade)’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레모네이드’ 역시 ‘라무네’의 독특한 병마개인 유리구슬의 이미지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낯설게 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주석이나 역주를 더는 전략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ラムネ」 낯설게 하기 ⇨ ‘라무네’
 친숙하게 하기 ⇨ ‘레모네이드’

다음 예문 (16)-(17)의 「オウム」는 일본의 사종교 집단인 옴진리교(オウム真理教)를 의미한다.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 교주가 1984년에 설립한 종교단체로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등 범죄행위로 악명 높은 종교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문화 용어인 「オウム」을 일본어 원음 그대로 ‘옴’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번역자가 각주나 역주를 사용해 예문 (17)처럼 번역한다면 한국인 독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문화 용어인 ‘옴(オウム真理教)’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한다. 등카어 부재의 이문화 용어 번역에서 각주나 역주 사용은 번역가의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번역전략이나 대안이 될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16) オウムの手によってサリン事件が起こされたという関連づけそのものが、私の頭の中にはありません。 『アンダーグラウンド, p.50』

음에 의해 사린사건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가 제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언더그라운드, p.46』

⇒ 음진리교(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등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사종교 집단 *역주)에 의해 사린사건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가 ……

(17) 私たちがチャーターしたのは、オウム真理教が買ったのと同型のロシア製のヘリである。

『緑の指, p.75』

⇒ 우리가 전세 낸 것은 음진리교(オウム真理教, 지난 94년과 95년에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사린 독가스 테러사건과 변호사 일가족 납치사건 등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 일본사회를 뒤흔들었던 일본의 사종교 집단 *역주)가 구입한 것과 동형인 러시아제 헬리콥터였다.

『녹색의 가르침, p.71』

아래 예문은 원문의 이문화 용어를 일본어 원음 그대로 음성번역(phonetic translation)을 하면서 각주나 역주로 처리한 일한 번역문의 예 및 각주나 역주 대신 이문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문 속에 풀어서 번역한 예이다. 일 대 일 번역 등가어가 없는 이문화 용어를 번역자가 각주나 역주로 처리하거나 혹은 번역문에 풀어서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번역 방법은 번역문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친숙하게 하기’ 번역 전략에 가깝다 볼 수 있다.

예문 (18)~(21)은 번역자가 원문의 이문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각주나 역주로 처리한 번역문이며, 예문 (22)은 이문화 용어 「下町」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각주나 역주를 별도로 달지 않고 이문화 용어 「下町」의 뜻을 문장 속에 독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풀어서 번역한 번역문이다.

(18) 「ねえ、私、やっぱり、どっちもやめて、チンドン屋さんになる!!」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p.13』

“엄마! 나, 생각해 봤는데, 양쪽 다 그만두고 그냥 친동야(이상한 복장을 하고 악기를 울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선전, 광고하는 사람 *역주) 될래!” 『창가의 토트, p.13』

위 예문 (18)에서 「チンドン屋」를 일본어 그대로 ‘친동야’로 번역하면 우리말 독자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번역자는 「チンドン屋」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 역주를 달아놓았다. 이처럼 우리 문화에는 없는 이문화 요소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번역문 독자에게 익숙한 ‘친숙하게 하기’로 번역할 것인지 원문에 충실한 ‘낯설게 하기’로 번역할 것인지 번역 전략을 고려

9) ‘チンドン屋(ちんどんや)’는 일본어 가나의 한글표기법을 따르면 ‘진돈야’가 올바른 한글 표기이다.

해야 한다.

(19)それから二人は改めて雛人形を飾った。博子の知っている雛人形に比べると、ここにあるのは見た目にもひとまわり大きく、デザインも古風だった。『ラブレター, p.11』
그리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히나 인형(*주: 히나마츠리 날 히나 제단에 올려놓는 인형)을 놓기 시작하였다. 히로코가 알고 있는 히나 인형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길보기에도 훨씬 크고 디자인도 고풍스러웠다. 『러브레터, p.11』

(20)もしあったとしても、はりぼてのぺらぺらの壁かもしれない。『アフターダーク, p.142』
혹시 그런 벽이 있다 해도, 종이를 겹겹이 붙여 만든, 허술한 ‘하리포테’ (종이를 거꾸집에 발라서 만든 소품-역주)라고나 할까, 그런 얇은 벽일지도 모른다. 『어둠의 저편, p.133』

(21)リンゴとタマネギとチーズと梅干ししかなくても、文句は言わない。
『走ることについて語るときに僕の語ること, p.128』
사과와 양파와 치즈와 우메보시메실장아찌 밖에 없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p.132』

(22)「近所の人も交代で世話をしてくれた。洗濯したり、買い物をしてくれたり、料理を届けてくれたり。うちはそのとき下町にあったから、それはよかったかもしれない。……」
『アフターダーク, p.213』
“동네 사람들도 교대로 돌봐 주었고, 빨래를 해주거나, 시장을 봐주거나, 먹을 걸 가져다주기도 했어. 우리 집은 그때 상공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변화기에 있었거든. ……”
『어둠의 저편, p.201』

4. 마치며

모든 언어에는 특수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편성도 존재한다. 번역은 바로 언어의 보편성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본고는 언어와 문화와 사고가 상이한 일한 번역에서 한일 양 언어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는 번역 전략으로 ‘친숙하게 하기(Domesticating Translation)’와 ‘낯설게 하기(Foreignizing Translation)’ 번역 전략을 이문화 용어를 중심으로 고찰·분석한 것이다.

또한 일한 번역에서 이문화 용어 번역에 가독성을 고려한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 예를 들며 번역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문화 용어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번역문 독자의 문화에 익숙한 ‘친숙하게 하기’로 번역할 것인지 혹은 번역문 독자에게 생소한 ‘낯설게 하기’로 번역하여 보존할 것인지 번역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의 이해 없이는 올바른 번역을 할 수 없다. 서로 다른 두 언어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는 접점에 번역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번역이란 이문화의 수용과 변용이며 이문화간 소통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본고의 실증적 번역 연구 고찰 결과는 번역문 독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일한 번역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번역 능력 향상을 꾀하는 번역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 김효중(2000)「번역의 역사와 이론-독일의 전통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1-1, 한국번역학회, p.47
- 오경순(2008)「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0a)「日韓 翻譯 戰略: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 -이문화 용어와 외래어 표기를 중심으로-」『日本近代學研究』第27輯(2010.2) 韓國日本近代學會, pp.95-114
- _____(2010b)『번역투의 유혹』이학사
- _____(2011)「일한 번역과 번역투」『인간과 문화연구』第19輯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pp.87-113
- _____(2013)『동아시아 교류와 문화변용』박문사, pp.393-427
- _____(2014a)「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 -피동표현과 사동표현 번역문을 중심으로-」『日本近代學研究』第43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119-138
- _____(2014b)「일한 번역의 번역투 연구-‘~적(的)’의 번역과 번역투를 중심으로-」『日本學報』第99輯, 日本學會, pp.75-92
- 영미문학연구회번역평가사업단(2005)『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주)창비, pp.21-22
- 윤상인 외(2008)『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소명출판, p.37, p.92
- 이규태(2001)『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인의 의식구조』신원문화사, pp.13-14
- 이희재 옮김(2001)『번역사 산책』(쓰지유미 저) 궁리출판
- 임종석(2010)『번역, 나도 할 수 있다』제이앤씨
- 정연일·남원준 옮김(2006)『번역학 입문』(Jeremy Munday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22
- Shuttleworth, Mark & Cowie, Moira.(eds)(1999)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p.134
- Venuti, Lawrence(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20
- Kade, Otto(1968) *Zufall und Gesetzmässigkeit in der Übersetzung*. VEB Verlag Enzyklopä die. Leipzig, p.149

【사전류】

- 『漢韓大字典』(民衆書林 編輯局 編, 民衆書林, 1997)
- 『広辞苑』(新村出 編, 岩波書店, 1987)
-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저, 민중서관, 1961)

【용례 출전】

- 浅田次郎(1997)『鉄道員』集英社
- _____ (2009)『つばさよつばさ (ステキなステーキ)』小学館文庫
- 市川拓司(2003)『いま、会いにゆきます』小学館
- 岩井俊二(1998)『ラブレター』角川書店
- 上野千鶴子(2006)『男おひとりさま道』法研
- 奥田英朗(2004)『空中ブランコ』文芸春秋
- 黒柳徹子(1984)『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講談社
- 曾野綾子(2000)『今日をありがとう』徳間書店
- _____ (2002)『緑の指』PHP研究所
- 田山花袋(1997)『蒲団・重右衛門の最後』新潮文庫
- 村上春樹(2004)『アフターダーク』講談社
- _____ (2010)『走ることにして語るときに僕の語ること』文春文庫
- _____ (1999)『アンダーグラウンド』講談社文庫
- 吉本ばなな(2006)『哀しい予感』幻冬舎
- 권남희 옮김(1998)『러브레터』(이와이 순지) 집사재
- 김난주 옮김(2007)『슬픈 예감』(요시모토 바나나) 민음사
- _____ (1999)『키친』(요시모토 바나나) 민음사
- _____ (2000)『창가의 토토』(구로야나기 데쓰코) 프로메테우스 출판사
- 양윤옥 옮김(2005)『지금 만나러 갑니다』(이치가와 다쿠치) 랜덤하우스중앙
- _____ 옮김(1999)『철도원』(아사다 지로) 문학동네
- 양영관 옮김(2010)『언더그라운드』문학동네
- 오경순 옮김(2008)『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소노 아야코) 도서출판 리수
- _____ 옮김(2003)『녹색의 가르침』(소노 아야코) 도서출판 리수
- _____ 옮김(2014)『독신의 오후』(우에노 지즈코) 현실문화연구
- 이영미 옮김(2005)『공중그네』(오쿠다 히데오) 은행나무
- 임홍빈 옮김(2005)『어둠의 저편』(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 _____ 옮김(2009)『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문학사상사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要旨>

일한 번역의 이문화수용과 문화변용

문화의 이해 없이 번역은 불가능하다. 최적의 문화적 등가성 확보는 번역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자 번역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특히 문화적 등가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문화 용어 번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모든 번역에서 중요한 요소는 원문의 뜻을 번역문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올바른 말로 옮기는 일이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옮긴다는 것은 번역문 문화에 맞게 이문화 수용과 변용이 가장 자연스럽게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문화가 다른 한일 양국의 이문화 요소가 실제 일한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문화변용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 방법으로는 이문화 용어 번역에 ‘친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 번역 전략을 구사하고 적용해보면서 가독성을 고려해 다각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본고의 실증적 번역 연구 고찰 결과는 번역문 독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일한 번역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번역 능력 향상을 꾀하는 번역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ross - Cultural Acceptance and Acculturation of Japanese - Korean Translation

Translation is impossible without understanding the culture. The most difficult part in translation process is that to keep the cultural equivalence, requiring much attention of translators. Especially, it is crucial in terms cross-cultural translation as it does not have cultural equivalence.

Delivering the simple and correct word for readers to understand the original context is important in any kinds of translation. This also means that the cross culture is changed and adopted in the context of the translation culture.

This paper will analyze on the process of how cross-cultural elements in Korea and Japan are accepted in Japanese-Korean translation. The strategies of "Domesticating Translation"& "Foreignizing Translation" are applied in this analysis, considering the readability of readers.

This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nslation, meeting the readers' need, as well as the translation education to advance the skills of translation.